저렴한 '잠만 자는 방' 인기

대학가 · 직장인 선호
월세 싸고 크기 원룸 비슷
전월세 상승 등 원인

최근 도내 대학가와 직장인들에게 '잠만 자는 방'이 인기다.

월세도 저렴하면서 굳이 음식을 해 먹기가 귀찮다는 게 이유다.

또한 1평 남짓한 고시원처럼 방이 적거나 밀집해 있는것도 아니고 크기가 원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도 선호 요인이다.

게다가 요즘 원룸은 낮은 시중금리로 대부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며 5~6%정도 값을 올려받고 있는 추세인지라 보다 싼 월세를 원하는 대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예컨대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에서 근무하는 김모씨(43)는 사무실 인근 '잠만 자는 방'을 구했다.

공과금까지 포함해 한달 35만원.

조식을 할 경우 10만원이 추가되지만 식사를 안 챙겨먹는 날이 많아서 차라리 잠만 자기로 했다.

김씨는 "기관이 이전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다. 처음엔 하숙을 생각했지만 차라리 잠만 자고 외식하는 게 설거지 걱정도 안하고 편하다"면서 예찬론자가 됐다.

대학가도 최근 '잠만 자는 방'을 따로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대학가는 혁신도시와 달리 식사 제공을 안 하는 대신 월세를 낮춰 방을 빌려주고 있다.

도내 한 대학 인근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신모씨(47)는 "원룸이 노후해 학생들의 문의가 적은 상황이다. 학생들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잠만자는 방'으로 전환해 임대료를 적게 받으니 공실률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대학가 잠만자는 방 월세는 18~25만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학생들은 밥값, 술값보다는 월세가 싼 방을 선호한다. 운영이 어려운 주위 오래된 원룸들도 잠만자는 방으로 동참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잠만 자는 방을 구한 천모씨(20)는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서 방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이 잠만 자는 방을 선호하는 것은 기숙사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가 전월세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도 잠만 자는 방은 관리비나 보증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천씨는 또 "최근에는 여러 명이 한 집에서 살면서 침실은 따로 쓰지만 주방 욕실 등은 공유하는 셰어하우스가 뜨고 있다"면서 "잠만 자는 방이 늘어나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소규모 농가도 가축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사육시설면적 소 · 돼지 · 닭 · 오리 50㎡ 초과하면 허가대상 포함돼

앞으로 소규모 농가도 소와 돼지 등을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대상을 사육시설면적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가축사육업에 대해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3일부터 사육시설면적이 소·돼지·닭·오리 50㎡를 초과하는 농가까지 해당된다.

해당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월13일부터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가축사육시설 면적 15제곱미터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농가가 기준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년 1회 이상 정기 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해 수시점검도 할 방침이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성주 기자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 공고

전문기업 50개사 · 강소기업 120개사 신규 선정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했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은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 주도하는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공고된 사업은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이다.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50개사 내외의 신규 기업들을 공동 선정해 최대 5년간 75억원(연간 15억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R&D 자금을 지원한다.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최대 5년간 5억원(연간 1억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지식재산권, 국제조세, 물류, 해외수주)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연계 지원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120개사를 신규 선정해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IP전략수립 등을 지원한다.

R&D 과제는 최대 2년간 6억원(연간 3억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65%까지 지원한다.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은 3년간 2억원(연간 1억원)이내에서 사업비의 50%~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통합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하면 된다.

정원탁 전북중기청장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역량있고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군산 현대 메트로타워 2차 아파트 분양

선 시공 후 분양
5개 동 942세대 규모
3월25일 견본주택 개관

'선 시공 후 분양'으로 믿음을 쌓아왔던 군산의 대표 향토기업(유)현대주택건설의 '도심 속 스카이라인' 메트로타워 2차 아파트가 착공 3년여 만에 드디어 분양에 나선다.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현대 메트로타워는 완공 후 자신이 살 집을 직접 고르고 확인하여 계약하는 장점이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완공된 아파트를 골라 계약한다는 건 큰 혜택이다.

군산시 대명동 메트로타워 2차는 전용면적 84.98㎡ A타입, 84.9648㎡ B타입, 84.9303㎡ C타입으로 30층과 32층 각각 2개동 40층 1개동 등 모두 5개동 942세대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군산 최고층인 40층으로 들어서는 메트로타워 2차는 현재 공정률이 92% (2016년 1월30일 기준)로 막바지 마감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3월25일 아파트 실 세대에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메트로타워는 수송, 미장지구, 동부권 개발지구와도 5분 거리이며, 랜드마크에 더해 도심 개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인근 지역에 초(구암·중앙·풍문), 중(진포·영광), 고(제일·군고) 등의 학군이 갖춰져 있고, 이마트와 인접한 재래 시장 등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한다. 진포 해양 테마공원,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근접해 있는 것도 매력이다.

특히 지상 120m정도 높이의 최상층은 군산시내 전경을 한 눈에 품을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안에 중앙광장, 배드민턴장, 작은도서관, 보육시설, 넓은 운동 시설공간을 제공한다. 단지 내 상가 209동 3층 520㎡면적 전체를 입주민 공동시설로 제공하여 휘트니스, 요가룸, 탁구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층아파트의 문제가 되는 화재를 대비해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점도 눈에 띈다.

건축부지 전체가 석산이어서 지하 2층 깊이 암반과 일체화가 되도록 건축부지 전체에 매트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바람이 센 군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내풍은 물론 내진설계까지 반영하여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안정적이다.

타워형 아파트로 3개 타입 모두 군산시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한다. 첨단 무인경비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 지하주차장 비상벨 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 최신식 홈네트워크시스템도 완비했다.

현대주택건설 관계자는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업체라는 자부심으로 지역민에게 받은 성원에 다시 한번 보답하기 위해 전세대 발코니 확장, 거실+안방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창호시공, 등을 기본서비스 품목에 넣었다"고 말했다.

향토기업 현대주택건설은 현대한솔, 세솔, 오솔 임대아파트와 파인빌 1차· 2차, 메트로타워1차 분양을 통하여 튼실한 주택건설 업체로 검증받았다.

이번 메트로타워 2차 건설을 통해 다시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올들어 배추 25%↑, 양파 11%↑

올해 들어 배추와 양파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생필품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을 통해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1월 배추 1포기(1950~2000g) 가격은 2569원으로 전월 대비 25.2% 상승했다.

또 양파 1망(1500g) 가격은 4278원으로 전월 대비 10.7% 올랐다.

이 밖에도 1월 들어 녹차류(+8.2%), 섬유탈취제(+7.8%), 주방세제(+6.8%), 생선통조림(+6.0%), 일반면도날(+5.9%), 쇠고기(+3.2%), 발효유(2.8%) 등의 가격이 비교적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돼지고기(-9.8%), 선크림(-8.5%), 부침가루(-8.1%), 쌈장(-7.7%), 핸드로션(-6.7%), 호일(-5.4%), 무(-5.2%) 등의 품목은 가격이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양파, 배추, 쇠고기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돼지고기와 무 가격은 안정되는 모습이다.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품목은 양파(+81.0%), 배추(+36.2%), 빵(+31.5%), 쇠고기(+17.0%), 벌꿀(+14.6%) 등 대부분 식품류였다.

반면 돼지고기(-2.8%)와 무(-3.9%) 가격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성주기자

전북은행-공무원연금공단 복지카드 업무제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제휴를 맺고 오는 24일부터 전북은행 JB카드 소지 공무원이 JB카드로 복지포인트 사용 및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전북은행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7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본사 4층 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시스템 연동 및 공무원 복지카드 업무제휴 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제휴로 신용카드 업무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데이터 분석과 공무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공무원이 선호하는 업종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탑재해 올해 4월 중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상품을 출시하고, 전북지역 및 도외 현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발급해 사용자의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공무원들에게 특화된 서비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전북은행